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창조

발행일 2012년 5월 8일 (화)

발행인 성영관 편집 김종성

주 소 (700-821) 대구 중구 동산동 234

전 화 070-4095-6420

홈페이지 <http://creation21.or.kr>

I 이달의 소식

1. 2012 국제 학술대회 안내 1쪽

II 내용

- | | |
|---|----|
| 1. 노아의 홍수 (57) 물이 완전히 마름 - 이재만 | 2쪽 |
| 2. Victor's Bible Journey (36) 성막 - 이종현 | 4쪽 |
| 3.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22) 아브라함 언약 - 김무현 | 6쪽 |
| 4.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동물 개 - 대구지부 | 9쪽 |

인사말



몇 년 전만해도 하나님의 창조를 왜 사람이 증거 하려고 하느냐며 창조과학에 대해 오해를 했었습니다. 어쩌면 과학이 없어도 하나님 믿는 데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따짐 없이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창조를 못 믿도록 진화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에 과학적 오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창조하신 예수님의 현대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드러 내신 놀라운 과학적 지식을 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이 성경의 내용을 신화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과학적 혹은 초과학적이고 역사적이기에, 말씀에 기반을 둔 과학 공부와 역사 공부가 필요합니다. 석탄의 형성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된 것이 아니라 격변에 의해 빠르게 형성됨을 증거한 '스티브 오스틴' 박사도 '성경이 답'임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말씀에 따라 공부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평생(!) 예수님을 전공하며 살아가요.^^*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회원 갈 은 주 올림 -

1. 2012 국제 학술대회 안내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5월 19일(토)에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에서 "자녀와 함께 참가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오후 13:30~18:00시까지 10세~16세 자녀들을 대상으로 창조과학 실험세션이 마련되어 있어서 신나는 창조과학 활동을 6개의 코너에서 마음껏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아래 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kacr.or.kr/bbs/view.asp?tn=news&key_id=4708&b_no=4515&page=1&category=1

자녀와 함께 참가하는
창조과학 국제학술대회

부모에게는 창조신앙의 회복을!
자녀에게는 신앙의 강력한 도전을 원하십니까?



공동대표

안봉준 목사 (창조과학회 부회장)

최종준 목사 (창조과학회 부회장)

안영미 목사 (창조과학회 부회장)

학예대표

안봉준 목사 (창조과학회 부회장)

이영구 목사 (창조과학회 부회장)

장영진 교수 (창조과학회 부회장)

일시 2012.5.19(토) 08:30~18:00 **장소** 수영로교회 은혜홀

참수 **다함** 카페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등록** 사전등록 1만원 (~5/12까지), 현장등록 2만원

체험교실 대상 :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등록** 사전등록 1만원 (~5/12까지), 현장등록 2만원 (체험활동비/개인수첩/정장착용 포함)

문의 485-01-086134 (해당주 :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정영갑)

문의 및 등록 손해경 간사 (010-4173-0067), 박영민 간사 (010-4210-1980)



물이 완전히 마름

“육백 일년 정월 곧 그 달 일 일에 지면에 물이 건헸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건헸더니 이 월 이십 칠 일에 땅이 말랐더라.” (창 8:13, 14)

Now it came about in the six hundred and first year, in the first month, on the first of the month, the water was dried up from the earth. Then Noah removed the covering of the ark, and looked, and behold, the surface of the ground was dried up.

In the second month, on the twenty-seventh day of the month, the earth was dry.

- Genesis 8:13-14, NASB

노아가 육백한 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스무이렛날에, 땅이 다 말랐다. - 창세기 8:13-14, 새번역

278일째 되던 때에 날려 보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때 노아는 비둘기가 서식할 만큼 땅이 마르고 호전됐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노아는 방주에서 바로 나오지 않았다. 성경에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다음 절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지면에 물이 건헸 것을(the surface of ground was dried up) 보았다는 기록이 바로 이어지지만 실제로 그 기간은 계산을 하면 29일이라는 간격이 있다. 즉 홍수는 노아나이 600년 2월 17일에 시작하였고 뚜껑을 제친 것이 601년 1월 1일이므로 이는 홍수시작 307일 째 되던 날이며, 마지막 비둘기를 내보낸 278일과는 29일의 기간이 지난 다음이다.

더욱이 노아는 29일을 더 기다려 지면에 물이 건헸 것을 보았음에도 다음 절인 14절에 2월 27일 땅이 말랐을 때, 즉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57일(1월 1일에서 2월 27일)을 더 기다렸다. 그러므로 마지막 비둘기를 보낸 후에도 노아는 86일을 방주에서 더 기다린 셈이 된다. 다시 계산을 종합하여보면,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였으며 10월 1일까지 74일 동안 물이 빠져나갔다고 한다면, 물이 마르는 기간만 147일로 계산이 나온다.

ה	ע	ב	ש	ב
5	70	2	300	2
379				
seventh the on				

י	נ	ש	ה
10	50	300	5
365			
,second			

ש	ד	ח	ב	ו
300	4	8	2	6
320				
month the in And				

ש	ד	ח	ל
300	4	8	30
342			
,month the of			

ו	י
40	6
56	
day	

ו	ע	ש	ר	י	ם
40	10	200	300	70	6
626					
twenty-					

ה	ש	ב	י
5	300	2	10
317			
dry was			

ה	א	ר	י
90	200	1	5
296			
earth the			

<출처: adorealva.blogspot.com

편집주: 창세기 8장 14절의 히브리어 단어 8개의 숫자를 합한 값은 창세기 1장 1절의 7개의 숫자를 합한 값과 마찬가지로 2701(소수이자 대칭수인 37과 73을 곱한 값)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규모를 보더라도 물이 마른다는 것은 지역적인 홍수로는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홍수기록은 홍수가 시작되는 기록뿐 아니라 마르는 과정까지 일관되게 전 지구적 홍수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방주, 까마귀, 비둘기, 감람 새 잎사귀 등 일련에 언급된 내용들이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면 한낱 코미디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모든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시작한 노아홍수는 150일 동안 물로 지구전체를 덮고, 덮었던 물이 74일 동안 바다로 빠져 나갔으며, 147일간 물이 마르는 과정을 겪었던 총 371일(수일 정도 길 수도 있음) 간의 방대한 전 지구적 심판이었다! 그리고 이 전 지구적인 홍수심판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창 6:8) 노아 여덟 가족만이 살아남은 것이다.

격렬하게 홍수가 일어나고 물이 빠져나가는 정신없는 상황에서보다 오히려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춘 후부터 고요하게 물이 마르는 147일 동안이 노아에게 훨씬 조바심 나고 더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방주도 한 곳에 머물렀고 이제는 방주 밖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보다는 앞으로 나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내심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 살아야 할 곳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궁금함이 본격적으로 가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심판의 장엄함과 단호함을 지난 후였기에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하여 더욱더 궁금했을 것이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후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한 주일 간격으로 날리며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 속에서 그 심정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런 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방주에 머물며 주를 앙망하는(waiting for the Lord) 의인 노아의 믿음도 함께 엿볼 수 있다.

출처: <http://www.hisark.com> **참조**

성막

(The Tabernacle - 출 35-36; 39:1-31; 레 1-9)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숙영했을 때, 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율법을 주셔서 그분의 백성들이 지키도록 했다. 그러나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바로 그 시간에 백성들은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숭배함으로 범죄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에는 그분의 장막 집과 백성들의 그룹, 그분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분을 경배할 때 가지고 나올 제물들의 체계 등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었다. 성막이 완성될 동안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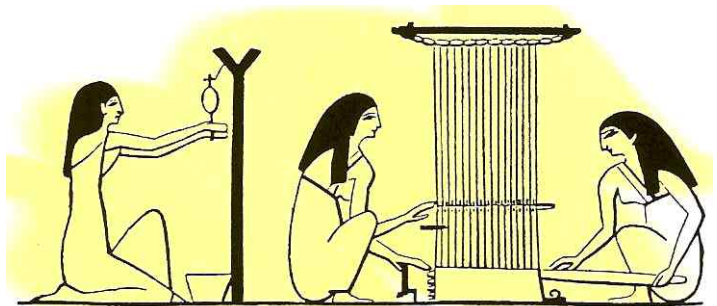
배치와 건설

선물로 받은 금, 은, 동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거주할 장소를 만들었다. 14가지 원재료를 사용하여 예배를 위한 장막을 완성했는데, 거기에는 지붕을 위한 동물 가죽, 채색 염료를 위한 곤충, 들보와 나르는 막대를 위한 아카시아 목재, 근사한 외관을 위한 진귀한 금속들이 포함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곳 저곳을 여행해야 하므로, 성막은 해체하기 쉽도록 만들었다. 성막 주위에는 바깥뜰이 있었다. 장막 내부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에 들어가는 성소와, 일 년에 오직 한번 들어가는 지성소의 두 방이 있었다.

기명(가구)

진설병을 올려놓는 테이블이 성소의 북쪽에 있었다. 여기에는 12개의 빵조각이 항상 놓여있었다. ‘메노라’라고 하는 금촛대가 성소의 남쪽 벽에 있었다. 그것이 방을 밝혔다. 향단은 성소의 한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앞에 있었다.



<성막을 위한 직물을 직조하는 장인은 이집트에서 그 기술을 배웠다.>



<이집트의 거울을 녹여서 성막의
놋대야를 위한 동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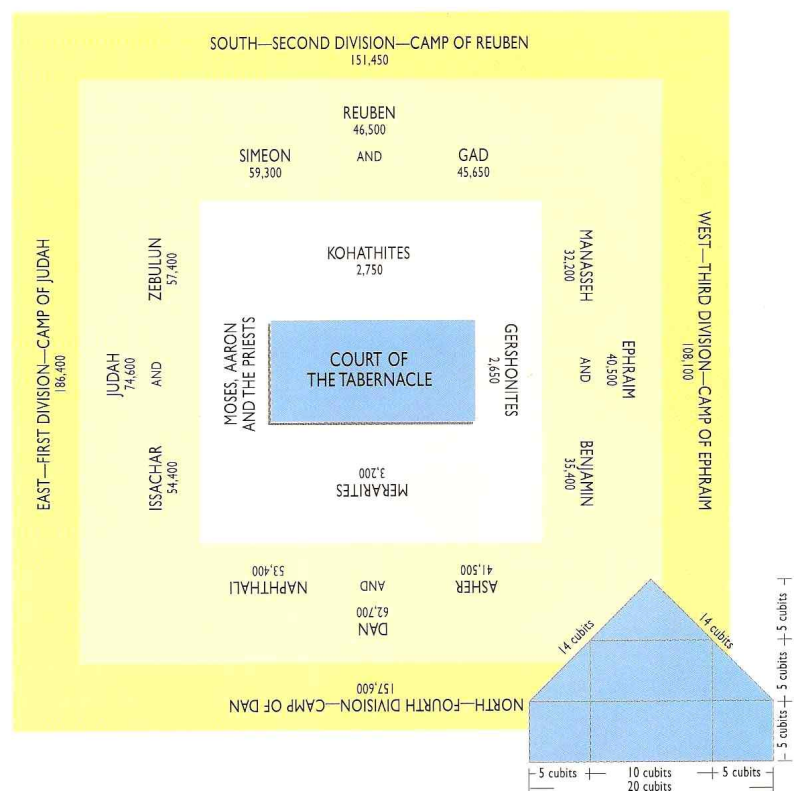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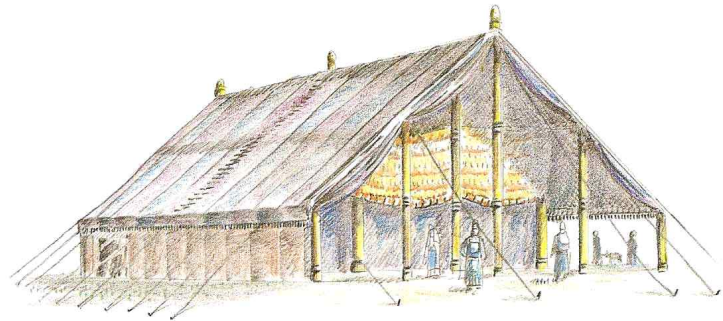
매일 아침 아론은 제단 위에 향을 피웠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었다.

제사장

아론의 후손 즉 레위지파에서 태어난 남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이 남자들이 성막을 맡았고, 다른 봉사와 더불어 매일의 희생제를 수행했다. 제사장들은 성전세의 일부를 받아서 생활했으며, 매일의 희생제에서 나온 고기의 일부를 먹었다. 대제사장은 아름답게 수놓은 짙은 청색의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진귀한 보석들로 장식된 흉배를 입었다.

제물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쳤다. 구약시대에 사람은 제물 혹은 희생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돌아올 수 있었다. 희생제를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했다. 종종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여 희생제를 드렸다. **창조**



<성막의 외관과 치수, 그 주변의 지파의 배열>

아브라함 언약

(5) 아브라함 언약 (The Abrahamic Covenant)

창세기 12:2-3과 15장, 17:4-9을 정독하십시오. 아브람에게 어떠한 언약이 주어졌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2-3)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찌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좇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좇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4-7)

이는 단지 그의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약입니까? 아니면 온 인류에 대한 것입니까? 대답의 근거가 되는 구절은 어디인가요? (참고: 갈라디아서 3:7-9, 14)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8,14)

창세기 15장에 의하면 그 언약은 조건적(conditional)인가요, 비 조건적(unconditional)인가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브람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우 중요한 언약을 세울 때, 동물의 시체를 반으로 쪼개 놓고, 둘이서 그 사이를 걸어가며, 이 언약은 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니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함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 언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 쪼개진 동물과 같이 되리라는 다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쪼개진 동물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그것은 쌍방적입니까, 일방적입니까?)

하나님께서서는 타는 횃불과 같이 나타나시어 쪼갠 동물의 시체 사이로 홀로 통과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설정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5:8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로마서 5:8)

쌍방간의 계약은 만약 어느 한 쪽이 지키지 않으므로 인해서 파기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시 하나님께서 홀로 일방 계약(unilateral covenant)을 하심은 상대방의 행위에 관계없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그 스스로에게 맹세하였다고 표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13-14, 17-18)

“언약”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약 300번 사용됩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을 세우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베리스 카라스[beriyth(쪼개 놓은 짐승 사이를 통과하여 맺은 맹약) karath(cut, 자르다)]로 표현됩니다. 팔머 로벗슨(Palmer Robertson)은 성경상의 언약(covenant)을 “주권적으로 사역되는 피로 맺은 약정(bond in blood sovereignly administered)”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11)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꼭 이루겠노라는 그 피의 언약을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마태복음 26:28)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피를 십자가 위에 쏟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사이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흘리신 피의 고귀함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직 들찌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 일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히브리서 9:7)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11-12)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sacrifice of atonement)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25)

하나님께서서는 그 피의 언약 이야말로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를 것임을 몇 번씩이나 다짐하고 또 다짐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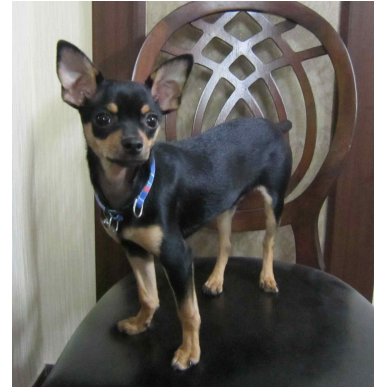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37)
“Only if the heavens above can be measured and the fountains of the earth below be searched out, will I reject all the descendants of Israel because of all they have done,” declares the Lord. (Jeremiah 31:37)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15)

출처 :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중에서 **창조**

개 (The Dog)

여러분은 개를 키우고 있나요? 저는 키우고 있지 않은데, 우리 조카는 미니어처 핀셔(Miniature Pinscher)라는 품종의 개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호에서는 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개 중에서 기갑(양 어깨 사이에 도드라진 부분)까지의 높이가 가장 높은 개의 품종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으로는 어려우니깐 객관식으로 보기를 드릴게요.^^*

1. 아일랜드 울프하운드 (몸집이 큰 사냥개의 일종)
2. 아프간 사냥개 (털이 부드럽고 코가 뽕족하며 키가 큼)
3. 그레이트데인 (털이 짧고 몸집이 아주 큰 개)
4. 살루키 (그레이하운드 비슷한 사냥개)
5. 똥(?^*)개

답은 1번 이랍니다. 아일랜드 울프하운드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개 품종 중의 하나로 작은 조랑말 정도의 크기입니다. 수컷의 경우 기갑까지 약 80센티미터에서 90센티미터 정도이고, 뒷다리로 세우면 일반 성인 남자보다 큰 2.1미터까지 달한답니다.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가장 작은 품종은 어느 것일까요?

1. 토이푸들 (Toy Poodle)
2. 치와와 (Chihuahua)
3. 잡종견 (Mongrel)

물론, 가장 작은 특정한 개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품종으로 여겨지는 것은 치와와입니다. 대개 기갑까지 15센티미터에서 23센티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토이푸들도 작은 품종인데 약 25센티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치와와는 개의 품종 중에서 가장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이름은 멕시코에서 가장 넓은 주로, 우리나라보다 면적에 있어서 2.5배 정도 더 넓은 치와와(Chihuahua)를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냄새를 잘 맡는 사람에게 ‘개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개에게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2백만 개 이상의 후각수용체를 주셔서, 품종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1,000배 정도 냄새를 더 잘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개에 대한 언급이 40번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정욕과 불결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Beware of the dogs, beware of the evil workers, beware of the false circumcision)” - 빌립보서 3:2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Like a dog that returns to its vomit is a fool who repeats his folly.) - 잠언 26:11

이러한 구절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9:8의 르비보셋의 대답과 마가복음 7:26-28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아니 그 누구보다도 가장 겸손히 당신을 낮추시어 창조주이시면서도 마땅히 취하실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겸손함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애완용 개가 주인을 늘 따라다니듯이 우리도 주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늘 따르며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호의 암송구절은 요한복음 12:26 말씀인데,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내 종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Whoever serves me must follow me; and where I am, my servant also will be.

My Father will honor the one who serves me.)” - 요한복음 12:26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creation21.or.kr)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